

광주FC, 홈 최종전서 승리로 유종의 미 거둔다

내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울산HD와 맞대결

승점 48 리그 8위…입장권 할인·수험생 혜택 등 이벤트 다채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홈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다. 광주FC는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7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올해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K리그1, AFC 챔피언스리그(ACLE), 코리아컵을 병행하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소기의 목표 또한 달성했다. 지난 35라운드 제주SKFC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면서 최소 9위를 확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것. 최근 대구전에서 0-1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으나, 이 역시 잔류에는 영향이 없었다.

현재 광주는 13승 9무 14패 승점 48점을 기록, 리그 8위에 위치했다. 파이널 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2경기. 리그 7위 FC안양(승점 38

점)을 누르고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3년 연속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광주는 시즌 말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현재 광주는 구단 역사상 첫 코리아컵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다음 달 6일 전북 현대와의 결승전을 한 달여 앞두고 파이널B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잔류를 확정 지었다. 이후 본격적인 코리아컵 준비 모드에 돌입했고, 남은 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 최상의 조합을 찾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울산은 코리아컵까지 단 두 번의 공식 경기를 남겨둔 광주에게 최고의 연습 상대가 될 수 있다. 비록 올 시즌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만큼, 전

북전을 대비해 그간 갈고닦은 전술을 실험하고 객관적인 저력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이에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A매치 휴식기를 보내며 울산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특히 홈 폐막전인 만큼 올 시즌 광주를 지지해 준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다

구단 역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홈 전 좌석 입장권(원정석 제외)을 40% 할인하며,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1000원에 입장 가능하다. 또한 핫팩 3000개를 준비해 증정할 예정이며, 2025시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플레이어 에스콰드 44명에 선발된 인원은 경기 전 선수들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경기장 외부에서는 올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대학생 마케터 ‘엘리트’가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해 준비한 ‘엘리트 엔딩 페어’, 와플대학 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가 홈 최종전에서 울산을 꺾고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겠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0월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울산HD와의 원정경기에서 헤이스가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화합·어울림 한마당…광주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열전

23일까지 시장장애인체육센터 등서…뉴스포츠·화합경기 등 24개 종목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9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일까지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축전은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생활체육행사다.

총 24개 종목(화합경기 6종목, 종목별 어울림대회 7종목, 뉴스포츠체합 11종목)에 2000여 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과 비장애인 동호인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20일 광주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뉴스포츠대회’는 드론, 그라운드골프, 서바이벌야구 등 11개 종목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21일 열리는 개회식은 치어리더 공연과 트로트 가수 신현영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강기정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장 대화사, 이점선 광주시교육감의 축사 등이 이어진다.

이후 펼쳐지는 ‘화합경기’는 각 구체육회 회장과 참가자 대표 선수가 함께하는 조정경기과 디스크 골프로 시작된다. 또 에어돔 사수, 풍선 터트리기, 바구니 피라미드, 인간컬링 등 6개 종목 600명이 경기를 이어간다.

조정 등 7개 종목 65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종목별 어울림대회’도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질 이번 대축전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스포츠 정신이 광주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 스며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9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일까지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남 골볼, 전국리그전 2년 연속 챔피언 ‘등극’

연장전 접전 끝 6-3 승리
김명진 남자부 MVP 수상

전남 골볼 선수단이 2025년 골볼리그전에서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전남 골볼은 최근 진행된 골볼리그전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상위 실력을 갖춘 골볼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1부 리그다.

전남은 플레이오프에서 인천도사공사를 상대로 7-6의 치열한 경기 끝에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강전 상대인 충남팀과 다시 한번 맞붙었다. 3-3으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고, 연장전과 예스트라드로우(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접전 끝에 6-3으로 전남이 우승을 확정 지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명진 선수가 남자부 MVP로 선정되며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선수단은 이번 감독을 중심으로 조은별 코치, 정재은 트레이너와 함께 손원진, 김명진, 안영준, 홍세복, 김철환, 강인수 등으로 전남직장운동경기부로 구성된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



2025 전국 골볼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전국 최강에 오른 전남 골볼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골볼선수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골볼 종목의 수준과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단합된 팀워크로 지역 골볼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내 골볼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임진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 골볼 선수단의 뛰어난 경기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전남 장애인체육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전남 강진서 ‘팡파르’

전국 105개 스포츠클럽 3300명 참가…10개 종목서 열전

전국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인이 전남 강진군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진다.

2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남 강진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전국의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스포츠클럽 축제다.

이번 교류전은 전국 165개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05개 클럽 3306명이 출전하게 됐다. 개최지 전남에서는 16개 클럽 5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스포츠클럽 경쟁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는농구·댄스스포츠·배구·배드민턴·수영·야구·체조·축구·탁구·테니스 등 총 10개 종목이 운영된다. 12세 이하부부터 일반부, 시니어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간 소통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클럽간 교류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등 스포츠클럽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진대회는 1·2회 대회까지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로부터 3억원의 국비를 지원(1회 대회 1억3000만원, 2회 대회 2억) 받음으로써 강진군 지

원(5000만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넘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도·전남도체육회로서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3대 메이저대회’에 이어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까지 개최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 첫날에는 전국 스포츠클럽관계자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건전한 운영 방향과 유소년 선수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육적 가치를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련된 환영리셉션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스포츠클럽 선수단과 관계자, 유관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전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며, 상호 협력과 화합을 다질 방침이다.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육도시’ 강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전국 스포츠클럽의 역량을 한데 모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